

對 話

호랑이해와 토끼해

지난해는 호랑이해였다는데 어디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 역시 民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함정이나 덫에 걸려 꼼짝 못하는 호랑이가 마지막 순간 양간 힘을 다해서 그것에서 탈출해 나오듯 民은 그 잃은 權利를 찾기 위해 노한 호랑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뛰기 시작한 단계는 아니었고 자든 잠에서 깨난 호랑이 처럼 으르렁 거렸다. 호랑이 치곤 파리한 호랑이다. 歷史上 계속 짓눌려 있었기에 사지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쇠잔해졌다. 中國大陸의 勢力은 우리의 執權層을 늘려서 길들였고 강한 執權層은 그 분노를 民에 양갈음하여 그 늘린 권위 의식을 발산하려 했다. 約者의 신경질적 발악이다. 日帝 40年間 우리의 民은 완전히 결박된 호랑이였다. 더이상 살아나지 못할 지경에서 外勢에 의하여 풀려 나왔다. 民中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돼

있었다. 결박된차 처음에는 발버둥을 쳤다. 그것이 3·1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日帝는 더욱 튼튼히 줄라냈다. 그로부터 살기를 체념한 이 결박된 호랑이는 죽음다음의 他界를 꿈꾸어왔다.

해방의 기쁨은 충천했다. 그러나 사지가 말을 듣기에는 너무도 쇠잔해졌다. 그래서 길든 짐승처럼 조용히 영양섭취만 피해왔다. 물론 가끔씩 그 본래의 기질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누구도 무서워 하지는 않았다. 4·19는 호랑이의 위력이 발휘된 사건은 아니다, 새끼호랑이들이 무서움 없이 거리로 나섰는 것이다. 그런데도 第一 공화국은 무서워 손을 들었다.

작년은 호랑이해! 어미 호랑이가 이제 겨우 일어설 만큼 제힘을 찾은 것인가? 금년은 토끼해란다. 토끼는 잘 뛰지? 뛰어도 내리막으로 뛰는 법은 없어! 그러나 결국 위트만 향해 뛰지! 토끼는 平和의 동물, 그러나 생명의 번식율은 강해! 금년은 위만 향해 뛰는 民

의 해가 될 것인가? 平和的, 그러나 생명력이 강해 계속 증강하여 民權으로 이땅을 채울 것인가? 그러기를 기원할 뿐이다.

하얀 토끼에게 白衣民族에게 祝福이 있기를! 계속 위만 향해 뛰는 해가 되기를! 내리 뛰면 잡힌다. 위로만 뛰어라.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너는 잡히지 않으리라, 두 토끼 잡는 격이라는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千萬의 토끼되면 널 잡을려는 자들은 손을 들 수 밖에 없자! 그러므로 이땅은 너 스스로의 自由의 동산이 되게 하라. 그래서 草原에 마음대로 뒹수 있게!

이해에 誌友 여러분과 가정에 平和가 깃들기를 빎니다.

예수는 政治犯?

그동안 本意아니게 많은 講演行脚을 했다. 힘의 한계를 알아 내판에는 굉장이 사양했는데도……

어떤 地方의 청년연합회가 주최하는 모임에 갔더니 큰 강당에 청중이 보잘 것 없었다. 주최측은 여러 가지 변명을 했다. 광고가 잘되지 않았으니, 장소가 급작히 바뀌어졌으니, 청중의 多少는 그리 문제 아니다. 나는 준비한 얘기를 끝내고 그 밤으로 서울을 向해 버스정류장에 나왔다. 전송하는 한 목사

님이 지나칠 정도로 이 밤의 강연을 높이 평가한다. 약간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그는 문득 예수가 정치범이라는 강연을 했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읽었는데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으니 해명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는 지나가는 말처럼 오늘 저녁에 바로 그 때문에 나오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을 異端者라고 까지 합니까라고 한다. 나는 약간 놀랐다. 그게 문제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政治犯으로 처형된 것은 성서를 읽으면 곧 알수 있는데 왜 그런 사실을 外面하며 왜 政治犯이라는 말이 그토록 모독스럽게 들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대체로 다음 두가지 理由를 생각하게 됐다. 첫째는 이른바 政·教分離라는 주장에 단단히 洗腦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政權者들은 독재적일 수록 國民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길든 짐승처럼 하라는 대로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있기를 바란다. 그저 조용히 하라는 것이나 하면 된다. 적극참여는 남의 제사상에 감춰라 배나라는 格으로 들린다. 그건 모든 것이 제것이라는 主人意識때문이다.

日帝는 물론 그랬다. 저들은 종교를 금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

이 현실에 적극적인 意味를 두고 참여하면 큰 일이다. 그러므로 但緒가 붙었다. 그것은 종교와 政治의 分離다. 그러면 政治가 모든 것을 장악한 마당에 갈길이나 向할곳은 이땅에는 없다. 그러면 결국 他界로 탈출할 때는 동경만이 남는다. 日帝는 이길에 대해서는 방해도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미소를 보이면서—그러기에 그 불길처럼 이는 부흥회운동을 방해한 일이없다—그 많은 군중의 움직임을 왜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 까닭은 그자리에서 하는 설교는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니 허무하므로 저 天堂만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스라기에 얼마나 편리한 도움을 주느냐! 他界까지 다스릴 흥미도 능력도 없는 판이니 他界行路를 방해할 까닭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民族的의 분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 저들은 계속(이 죄악이 찬 세상)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이 세상을 실패하게 비판했다. 비록 추상적인 표현이나 그 속에는 그 當時를 支配하는 日帝의 비판도 포함시킨 것이다. 그것으로 민족의식을 표현했다. 그런데 罪의 규정을 個人的 倫理的인 것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풀이 하므로 政治

的 압력을 잘 피해왔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는 동안에 정말 구조적, 정치적 죄를 보는 눈은 흐려지고 제죄를 自白하는데로 기울리게 했다. 그 죄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의 관련에서 생긴 것도 다 포함된다. 이태서 결국 自虐운동이 바로 회개운동이 됐고 이 自虐性은 속죄행위로 善行主義 아니면 경건의 표현으로 헌금이라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습성이 정치적이려면 아예 타락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듯하다. 또 하나는 (정치적)이라는 개념에 우리나라에서 얻은 경험이 작용한데서 온 것이 있다. (정치적)하면 권모술수를 일삼고 협잡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도록 우리 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인상을 뿌렸다. 나도 (정치적)이라는 용어를 싫어하며 또 저 사람은 정치적이려면 곧 不眞實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진다. 까닭은 사실 그런 意味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이해에서 예수를 정치범이라고 하면 분개할만 하다.

그런데 정치의 본뜻은 그게 아니다. 회합말에서 온 Politik(정치)이란 뜻은 공동체의 질서 보존 또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과 분명한 목적을 向한 계획적인 행위(실천)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전체다.

사람을 個別的으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의 一員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의 운명은 이 공동체의 方向이나 체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個人的 바른 길을 위해서도 이 공동체의 方向이나 체질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볼때 비록 한 사람의 구원을 爲해서도 政治的이 아닐 수 없다.

政治라는 政은 바로 正이다. 정치란 바르게 다스리는 것 卽 바른 질서를 위한 행위다. 이렇게 볼때 정치적이란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를 위한 行爲라는 뜻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예수가 政治的이었다는 것은 절대로 모독이 아니며, 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의 설교의 중심인(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實在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歷史에 온다고 하면 그게 政治的이 될수 밖에 없지 않는가? 또는 가난한자 富한자라고 하면 그게 벌써 정치적 개념인가? 가난하고 富하다는 것은 集團속에서의 비교에서 오는 개념인 限 그건 공동체를 전제하며 그 공동체안에서의 불균형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자는 복이 있다고 할때 그게 정치적 발언 아닌가? 또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는 경우 벌써 그것은 계층개념 아

닌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한 것은 저들이 윗자리에 앉아서 남을 억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벌써 정치적 책망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께서 政治犯으로 處刑됐다고 한 강연에서는 그런 메까지 展開한 것도 아니다. 단지 歷史的 사실을 규명한 것 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수는 十字架에 處刑됐다. 이걸 부정할 수 없지? 예수를 處刑한 것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예수의 罪名은(유대인의 王)이라고 성서에서 전한다. 이것은 그가 유대나라를 獨立하기 위해 싸운 反徒라는 罪名이다. 그 罪名을 떼고 생각해도 좋다. 十字架에서 處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十字架刑은 로마의 處刑法이다. 그런데 로마가 十字架에 處刑하는 경우는 두가지다. 國內의으로는 큰 罪를犯한 奴隸를 處刑하는데 적용했고 國外 卽 植民地人들에게는 로마에 반역하는 政治犯을 處刑하는데 썼다. 그러면 예수가 政治犯으로 處刑됐다는데 異論이 있을 까닭이 없으며 그것이 그렇게 불명예한 일일 수 없는 것이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예수가 정말 유대獨立운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그가 유대독립운동을 했

다고 보지 않는다. 더욱이나 예수
가 暴力으로 로마에 대항하려고 꾸
민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로마정부가 誤解를 했다고도 볼수
있다. 그러나 그가 비록 폭력으로
로마전복을 꾀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의 행위가 政治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하는 결론은 말도 안된다.

예수의 말씀이나 행위가 그저 기
도하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오라는
정도라든지 윤리적으로 바로 살라
는 정도였다면야 왜 로마의 눈에
그처럼 위험한 人物로 보였겠는가?
비록 폭력으로 정권을 뺏으려는 운
동이 아니었다라도 그렇게 의심받
을 정도라면 그만큼 執權者의 눈에
그 權力이 위협을 당한다고 보였기
때문이었음은 틀림없는 일이 아니
겠는가? 그렇지 않고 이른바 政教
分離원칙에 서서 하나님을 설교한
정도라면야 종교의 나라 유대땅에
서 왜 하필 그가 많은 독립운동들
처럼 十字架에 處刑됐겠는가? 가
난한자들의 억울함을 돕기 위해 저
들의 입이 되어주고 손과 발이 되
어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대신할터다라고 권력자의 눈에 거
슬려 투옥되는데, 그 사회가 정죄하
여 모든 권리를 박탈한 죄인들이나
투옥된 자들을 義로운 者로 영접하
고 눌린 저들을 해방하러 왔다고
선언하는데,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친구로써 그들편에 서서 그들을 옹
호했는데 그래도 政治犯이 되는 것
이 이상한가?

왜 예수가 政治犯으로 處刑됐다
는데 그렇게도 놀라는가!

사실 그런 강연후에 어떤 未知의
사람은 一週間을 두고 전화공세를
쳐다가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내
同僚들까지 괴롭히면서 나를 죄인
취급한 일이 있었고 그밖에도 편지
로 전화로 (친절)한 항의를 받았다.
그런데 난 저들이 그리스도가 政治
犯이라는 규정때문이기 보다는 자
己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입
을 발견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政
治犯으로 처형됐으니 그리스도인들
은 모두 反政府운동에 나서거나 아
니면 政黨에라도 加入하거나 만들
라는 말을 한 일은 없고 또 그런
논리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단
지 묻고 싶은것은 不義한 것은 不
義하다고 證言하는 것이 그리스도
인의 할일이나 아니냐하는 것이다.
않된 것은 았됐다고 하고 억울한자
는 도와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나 아니냐? 아
니라면 그대로 있으면 된다. 그런
데 不義한걸 證言하는 행동을 비성
서적이니, 비그리스도교적이니 하
는 일은 그만두라 그럴려면 당신들
이 들고 있는 성서의 예언자들의 글
부터 찢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에

게 반기를 들어야 한다. 아니 신약에만 해도 세세요한이 헤롯의 不倫을 비판해서 처형됐다는 기사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고 비판했으니, 마땅히 죽을 죽음을 했다고 하거나 政教分離의 原則을 위반한 장본인이라고 규탄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政治團體〉는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시(사랑)을 바탕으로 했으며 平和의 궁극적(나라)를 지향한다. 그런데 근경에 政治的 意識이 높아가서 政治神學, 革命神學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교가 變했다 단 말인가! 아니! 그리스도교가 變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변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드고 있다. 가령 여기 물이 있다. 물은 교유의 성격이 있다. 그 성격을 지녀 물이다. 그런데 그것이 平面에 자리하면 生物들의 안식처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언덕에서 내리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瀑布같은 무서운 힘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물 自體가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러

므로 물은 瀑布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포괄한 규정은 아니다. 여기 쇠뎡이가 있다. 쇠뎡이는 그 자체의 성격이 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떤 강한 고체가 충돌하면 불꽃을 이트킨다. 그것은 그 屬性의 一面에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쇠뎡이는 곧 불꽃이라는 규정은 그 성격을 다 포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저항의 불꽃을 튀기는 것은 상황에 의해 생기는 일이다. 權力이 충돌하면 저항의 불꽃으로 되는 것은 그 屬性에서 오는 필연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어떤 權力과 같은 것과의 충돌에서 복수나 증오의 化身이 되면 그때는 이미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權力에 개입하는 것은 사랑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權力體가 되어 그것이 定座하면 이미 그 本性을 잃어버린다.

예수는 政治暴力에 의해 處刑됐다. 그러나 그는 政治的 권좌에 앉기 위해 저항하지 않았다. 그런 뜻에서 그는 政治犯은 아니었다.